
2020년 제39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9. 18. ~ 9. 2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9. 18.	시청률	0.124

【총 평】

“9.18 남북정상회담 2년, 남북관계 달라질 수 있을까?”를 주제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종걸 대표상임의장과 함께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관계 개선을 전망해 보았다. 그동안의 남북관계를 살펴보고 민간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신 ‘남북협력사업’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제3국을 통한 간접거래를 모색하는 등 민화협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징병·징용 피해자들의 유해봉환사업의 의미와 추진 현황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평화경제 구축의 필요성부터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예산안 확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 등을 다루었다.

【구성 및 내용】

“9.18 남북정상회담 2년, 남북관계 달라질 수 있을까?”는 정부차원의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민간단체 활동을 통한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노력의 조명을 했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에 대한 소개와 역할을 위주로 다루면서 남북관계의 지난 2년의 기억을 돌이켜봤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 가능성을 살펴보고 북한의 상황과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소개를 다루었다. 또, 남북교류 협력의 물꼬를 틀 민간교류 협력에 대한 국민적 정서와 민화협의 역할을 설명했다.

시작부분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를 소개하며, 지난 김대중 정부부터 거슬러 올라가 조직의 이력을 소개하는 부분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다. 또, 잠시 게스트의 조부인 이회영 선생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서 그 당시 독립투사들의 독립 운동이 소개 되어 몽글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언급으로 민화협의 이미지를 잘 살린 것 같고 이 장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변화해온 남북 관계의 모습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잘 편집했다.

또, 민간교류에 대해 다루었는데 현재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예로 들면서 어떤 식으로 민간 교류를 시작해야 할지 과제를 잘 제시했다. 민간교류가 거의 단절된 상황이지만 민간교류의 필요성은 확실하게 부각되었다. 특히 해외동포로 구성된 워킹그룹에 대한 소개가 기억에 남고 앞서 언급한 한미 워킹그룹과는 다른 조직이란 점도 잘 짚어줬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역시 유해 봉환 사업으로 유족들의 애틋한 심경을 잘 대변하여 역시 민간교류 사업의 필요성을 잘 대두시킨 것 같다. 민화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해봉환사업은 항일운동가의 유해를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와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현재는 유보된 상태이다.

민간교류에 이어 평화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예산증액의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핵은 핵, 남북은 남북’이라는 메시지에 공감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9. 19.	시청률	0.000

【총 평】

충남 부여의 죽도마을 앞 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진입로 실종과 해결,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 추석 연휴를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주목받고 있는 별초대행서비스의 전반적인 소개와 활용법 등을 전해주었다.

4차선 확장 후 진입로 실종은 '주민 안전' 최우선의 '안전 정책'이 부각되었는데, 불편해서 불법좌회전 하는 것을 방지한 과속방지카메라 설치 등 안전관련 개선내용이 많았다. '별초 대행 서비스'는 정부가 추석연휴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면서 모임 자제를 당부하며, 별초대행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방역과 안전'이라는 메시지를 잘 전달했습니다.

【구성 및 내용】

■ 4차선 확장 후 진입로 실종

'충남 부여군 죽교 마을, 당초 있던 2차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주민이 겪게 된 불편과 해결과정을 담았다. 공사 이전에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해 안전하게 마을로 진입했는데, 이후엔 '좌회전 차선이 사라져, 더 가서 우회해서 들어와야 하는 상황'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과 해결과정이 소개됐다. 마을 주민들은 사업시행 기관 및 부여군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해결되지 않아 지난 7월 주민 60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였다. 이후 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을 조사하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마을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신속히 조치를 진행했다. 특히, 신호등 신설은 수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해당 충남건설사업소에서 지원해주어 해결이 되었고, 과속 방지 카메라와 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이다.

'4차선 확장 후 진입로 실종'은 시청자들 입장에서 신속성이 돋보인 개선이었다. 권익위 중재로 '좌회전 차선 설치'가 합의됐지만 남은 절차가 있고 공사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필요한데, '임시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차선을 변경'한 사례였다. 행정적·기술적 마무리 전부터 융통성 있게 임시 조치해 '안전부분'이 크게 강조가 됐고, 주민 반응이 좋아서 인상적이었다.

■ 코로나19 시대 별초도 비대면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추석명절을 앞두고 별초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별초대행서비스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이미 여러 지자체의 경우 별초대행서비스의 이용 및 활용과 관련한 홍보를 펼치고 있고, 농협이나 산림조합 등과 연계하여 이용자들을 이어주는 업무도 진행한다. 비용은 묘소 1기당 10만 원 전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으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완도군 같은 곳은 40%의 비용을 보조해주기도 한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9. 19.	시청률	0.058

【총 평】

‘굴 안의 숨겨진 진실, 고양 금정굴 사건’은 6.25 전쟁이 낳은 비극을 고스란히 드러낸 고양시 금정굴 사건의 억울함을 화면에 담아냈다. 1950년 10월, 고양 경찰서장의 지휘아래 우익단체 회원과 북한에 부역한 혐의로 희생된 사람들의 금정굴 사건을 소개해줌으로써 한국전쟁 때 경찰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들의 집단 학살 및 암매장 사건의 진실과 사건 경위를 추적해 의미 있었다.

【구성 및 내용】

고양 금정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된 아픈 현대사다. 피해자 가족들의 피맺힌 증언과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사건을 재구성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사건의 전말은 시청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희생자들의 남겨진 가족들의 증언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는데, 가족이 학살당한 피해자이면서도 그동안 연좌제 등으로 고통 받았을 그들의 아픔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최성만씨 사연은 인민위원장이던 아버지가 부역혐의로 색출되어 금정굴에서 희생된 사연을 소개하고 신기철 소장이 등장해서 국가보안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버지가 인민위원장으로 추대된 배경과 억울하게 희생된 과정 등이 잘 설명되어 시청자의 이해를 도왔고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빨갱이로 낙인찍힌 최초의 배경이 언급되었다. 특히 금정굴에서 희생된 이후 동네 주민들로부터 외면받은 심경이 잘 표현되어 안타까움을 더했고 전쟁 당시 한강대교가 끊어져 피난을 가지 못해 부역을 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이병순씨 사연은 평범한 농민이던 아버지가 부역 혐의로 색출되어 희생당한 사연을 소개하고 당시 아버지를 찾으러 굴에 들어갔던 끔찍한 기억을 회상했다. 이 밖에 안종호씨, 송기순씨, 채봉화씨 사연은 각각 희생된 남편과 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하고 유족들이 원하는 바를 표명했다. 안종호씨 사연은 아내가 대신 소개했는데 형이 체포되어 사살당하던 기억을 떠올렸고 이 사연에서는 친척의 월복을 이유로 남은 가족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가 상세히 다루어졌다. 송기순 할머니의 사연은 치안대원 개인적인 원한으로 희생된 사연이었고, 채봉화씨가 금정굴에 아버지의 유골을 찾으러 온 사연이 소개되면서 유족들이 바라는 바가 언급되었고 관련 조례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전쟁 중에 부역자라고해서 재판은커녕 어떤 기록도 없이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고양 금정굴 사건도 남겨진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설움을 하소연할 수도 없는 처지에다 군사정권에서 연좌제 등으로 더 많은 고초를 겪었을 것을 생각하면 숙연해 질 수 밖에 없다. 부디 가족들의 바람대로 위령탑과 추모공원이 완성되길 기원한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9. 20.	시청률	0.026

【총 평】

‘2021년 예산안 이렇게 쓰입니다’는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정기국회 회기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이 어떻게 책정되고 어디에 주안점을 뒀는지를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들어 시의성, 정책알림 등을 살린 기획이 돋보였다.

내년도 중점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온라인 판로 지원 예산, 일자리 분야 예산, 한국판 뉴딜분야 예산을 구체적으로 다뤄 관심을 유발했다. 또, 내년 예산안을 소개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제도와 청년고용지원, 노인일자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소개해 정책알림이 역할에 충실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영상자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연으로 프로그램의 중량감이 높아지고 메시지 전달력이 강화됐다.

【구성 및 내용】

정부가 역대 최대인 555조 8천억이라는 예산 편성을 예고했고 그 쓰임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창출’과 ‘한국판 뉴딜’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냈다. 특히,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다뤄 아젠다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었고, 일반 국민에게 내년 예산안 편성 내용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었다.

중기부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코로나19로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돕는 현장을 소개한 도입부는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잘 대변했다. 명인이 만든 이름 있는 브랜드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많이 줄어 들어 홈쇼핑처럼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라이브커머스 홍보를 위해 깜짝 출연했다. 인력이나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을 위해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739억 원을 편성하여 비대면 온라인 판매에 지원한다.

특히, 라이브 커머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취업한 광고회사 직원, 어르신들의 일터 참기름 생산업체, 예비구직자 대학생 탐방 인터뷰 등 다양한 사례 탐방 구성이 돋보였다. 또한 단순하게 정책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보다 직접 상인들의 고충을 듣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취업자와 예비취업자의 입을 통해 ‘고용보조금’과 ‘추가고용장려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방식은 효과적이었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도 서술적으로 풀어가지 않고 서울 강동구청의 ‘그린리모델링’이라는 구체적 사례와 설계를 담당했던 이명주 교수의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한 것은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마무리부분에서 최용석PD가 “재정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를 제 궤도에 올려놓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내년 예산의 지향점을 확실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9. 20.	시청률	0.080

【총 평】

‘섬마을 미술관의 멋쟁이 관장님’은 전남 고흥군 연홍도에서 역발상 기회를 창출해 낸 선호남·장경실 부부의 ‘지붕 없는 미술관’을 따뜻한 서사로 담았다. 올해로 귀촌 15년 차를 맞이하는 섬마을 미술관장님 선호남씨는 예술로 농사짓는 섬마을 관장님이다.

육지에 닿을 듯 말 듯 한없는 그리움과 포근함을 드러내는 고흥 연홍도는 주인공의 마음 씩씩이와 닮아있다. 자연에 묻어난 연홍도의 오래된 소품을 새롭게 탄생시킨 주인공의 공간 미술 연출력이 돋보였고, 다양한 형태로 귀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다양성과 창의성을 드러내 흥미를 유발했다.

【구성 및 내용】

고흥군 금산면에 소재한 연홍도는 몽돌해변, 갯벌, 백사장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2015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었다. 연홍도 고샅길 돌벽에는 1970년대 어린이들이 딱지치기 등을 하며 유년기를 보낸 추억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가고 보고 싶은 섬'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는데, 화가 선호남씨의 귀촌이 작은 섬을 예술마을로 변화시켜 아름다운 갤러리가 되었고,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이 시선을 끌고 마음의 움직임을 주어 가고 싶게 이끌었던 시간이었다.

특히, 예술로 이웃과 소통하고 연홍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려내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린 섬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더불어 사는 정을 훈훈하게 느끼게 하는 화가의 손길을 영상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연홍도로 귀농해 미술관을 운영하는 독특한 귀농 형태를 보여줘 흥미로웠고 마을의 주민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귀촌 15년차의 화가 선호남씨는 이곳 연홍도에 내려와 폐교를 개조해 미술관을 만들고 카페를 차려 방문객에게 휴식과 예술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선호남 화백은 아내 장경실씨를 설득해 이곳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폐교된 학교를 미술관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섬마을 전체를 미술 작품이 넘쳐나도록 하고 마을 담장에도 작품이 설치된 모습이 이채로웠다.

선호남 화가의 귀촌 사례는 폐허가 되어가는 섬마을을 아름다운 갤러리 마을로 재탄생시키는 것 위에 마을 어르신들을 보살피는 세심한 정성과 효심으로 마을을 가꾸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특히, 예술로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예술의 위대한 힘을 느끼며 멋진 예술적 소신에 공감하며 매료되는 시간이었다.

섬마을 미술관의 전시회를 1년 10회를 꼭 채우고 있다. 화가의 아내는 전시회를 굳이 10회를 꼭 채우지 말자고도 권유했지만 뜻하는 바가 있는 주인공 화가의 뜻을 꺾지 못해 힘들어도 참고 따라주며 내조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9. 22.	시청률	0.000

【총 평】

코로나19로 빚어진 생활 풍속도 변화를 소재로 다룬 부분이 눈에 띄었고, 특히 현상을 분석, 진단한 뒤 대안으로 해결책을 제시한 기획력과 구성이 탁월했다. '비대면 시대' 속 무인점포 확산...우려되는 코로나19 풍속도를 소재로 한 점이 흡인력을 높였고 무인점포의 이점과 일자리 감소 등 양면성을 분석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 '기계에 밀려 사람이 밀리는 현상'을 표현한 마무리 메시지도 공감도를 높였다.

세계유산에 도전하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도전...주민 기대 커는 잊혀진 가야 역사의 재조명으로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고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를 잘 전달했다.

1970년 홍제천이 복개된 뒤, 반세기 동안 쓸모없이 버려졌던 길이 250m 너비 30m 지하 구간이 문화 공간으로 태어난 서울 서대문구 홍제유연과 음악이 흐르는 분당의 클래식 지하보도는 지하 공간도 생활에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해주어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효과도 기대된다.

【구성 및 내용】

■ '비대면 시대' 속 무인점포 확산...우려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바뀌고 있는 일상의 풍경을 조명하여 관심을 모았다. 무인 자판기, 반찬가게, 아이스크림 가게, 카페 등 다양한 품목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소개했다.

■ 갈 길 먼 비대면 수업...토론·참여형 학습 확대가 과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할 때 발생하는 시스템의 문제나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지적해 공감을 자아냈다. 특히,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학습 방법의 강조는 변화하는 시대 분위기에 적합한 메시지였다.

■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도전...주민 기대 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고분군에 대한 이해와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민들의 관심과 애정, 기대감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지하 공간의 변신...문화, 예술의 옷을 입다

오랜 세월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지하공간이 문화와 예술의 옷으로 갈아입고 태어난 서울 서대문구 홍제유연과 분당의 클래식 지하보도를 소개했다.

■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하나의 트렌드가 된 '언택트 문화'

비대면 수업에 취업, 여행까지 코로나19가 바꾸어 놓은 일상의 모습속에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온라인 전시와 축제, 사이버 전시관, 온라인 중계 등 예술산업 분야의 '언택트 문화'를 소개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9. 22.	시청률	0.025

【총 평】

올해보다 8.5% 늘어난 정부의 2021년도 예산안 555조8천억원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에 대해, 확장 재정의 불가피한 이유와 재정건전성의 여러 지표들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확장재정 지속·경기회복 견인’을 주제로 OECD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과감한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효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확장 재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는데 여러 가지 통계와 논리로 재정 확대의 이유를 설명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나 조세부담을 자료는 재정 확대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유용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위기 대응 확장재정 지속·경기회복 견인’은 확장재정 지속이 경기회복을 견인함을 알려주었고, 내년도 확장 재정의 편성 배경부터 재정 건전성 분석,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과 조세 부담률을 살펴며 현재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다.

내년도 확장재정 편성배경부터 꼼꼼히 살펴서 설득력이 있었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며, 분야별로 재원 배분 계획을 정리한 것이 아주 객관적이었고 신빙성이 있었다.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 여력 평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다른 나라와 증가 추이를 비교해서 훨씬 더 거시적인 관점으로 재정 증가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다. 선진국 및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를 해주어 현재의 우리 상황과 재정증가가 안심되었다.

Eh, 재정준칙에 관해 다루면서 더 과감해야 될지, 긴축재정을 유지해야 될지에 대해 논의해보았는데, 재정준칙의 장단점을 파악해 가면서 특수 상황에서의 재정 역할을 검토함으로써 확대 재정의 근거를 충분히 어필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해 언급했는데, 시나리오를 3단계로 준비해 가면서 설명한 부분이 눈에 띄었고 설득력도 있었다. 조세부담률 추이에서도 선진국과 수치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확대재정을 시행해도 좋을지 전망해보았다. 복지 강화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는데 소득 기반에서 자산 기반으로 세원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돋보였다.

‘핵심! 경제 가이드’는 OECD 국가중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 1위로 한국을 예측했는데 이는 방역과 재정 지원의 효과이며, 내년은 위기극복의 골든타임이고 정책은 타이밍이므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함을 알려주었다. ‘알뜰신잡’은 ‘치아건강 꿀팁’으로 치아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과 치아 검진의 중요성, 치아에 좋은 음식과 해로운 음식 정보를 제공했다.

프로그램	KTV 온라인 세상		
방송일자	2020. 9. 24.	시청률	0.078

【총 평】

KTV 온라인세상 주제는 ‘대한민국 발전상’이었다. 2020년 7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의 우주개발이 본격화 됐다는 하루멘터리 한국판 스페이스X “우주항공시대 열리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주요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다룬 문워크 “협치, 어느 때보다 중요”를 방송했다. 특히, 자료화면 뉴스나 일방적인 정부 정책을 소개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취재해 ‘한국판 스페이스X’ 개발 의미를 살펴 본 점은 매우 의미 있었고 메시지 전달 효과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하루멘터리는 우주항공시대를 주제로 개정 미사일 지침부터 누리호에 관한 소개까지 두루 다루면서 발사 성공을 기원했다. 문워크는 더불어 민주당 주요지도부 초청간담회 현장의 대통령 발언과 주요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을 편집해 소개했다.

우주항공시대를 한국에서도 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보여주는 우주항공연구원의 우주발사체에 관한 소개가 전해졌다. 지난 7월28일을 기점으로 한미 미사일지침이 개정되어 우주발사체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발맞춰 완성 단계인 '누리호' 발사체에 관한 연구개발 과정이 소개되었다. 특히,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우주발사체의 독자적인 순수 국내개발이 완성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발사 사례를 일자별로 소개해 주었다.

선병찬 발사체 비행 성능팀장은 고체연료의 중요성, 고체연료와 액체연료의 차이, 고체연료 자체 개발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고정환 한국형 방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누리호 발사체 개발과 이후 개선 계획 등을 설명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분을 분명하게 했다. 한국형 스페이스X 효과와 성능 우수성을 설명할 때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한 구성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여주었고 설명도 깔끔하였다. 또한, 인터뷰 역할 배분을 그 보직에 맞는 내용을 담아 신뢰성과 메시지 전달력 효과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로 선출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당직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국난극복에 앞장서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여야간, 여야정 간의 협치를 절실히 요청하고 다져나가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자는 다짐도 했다. 특히, 당정의 주요 간담회장 분위기를 통해 국민의 어려운 민생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장치의 확보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정이 협치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코로나 영향으로 초청 범위도 줄었고 만찬 대신 간담회로 축소된 자리였지만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좋았다. 문대통령은 ‘협치’를 이낙연 대표는 ‘중단없는 개혁’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국정과제 실현을 보여준 문워크 “협치, 어느 때보다 중요”의 비하인드 컷은 흥미로웠다.

프로그램	생방송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9. 24.	시청률	0.012

【총 평】

‘정책을 쉽고 재밌게 전달한다’는 기획의도로 가을 개편에 따라 첫 선을 보인 <생방송 최일구의 정말>은 저녁시간대 편안하게 주요 뉴스와 정책 이슈를 알아보고 핫 이슈에 대한 시시비비와 잘못 보도된 정책뉴스를 바로잡아주는 포맷이 시청자의 눈길을 끌었다. ‘오늘의 뉴스’, ‘주간 핫 뉴스’, ‘PICK & PICK’ 뉴스, ‘이 뉴스 정말? 꼼꼼한 팩트체크’ 등 다양한 구성이 짜임새가 있었다.

‘오늘의 뉴스’는 실종된 어업지도원 복측 총격 사망 사건의 내용과 향후 남북관계 전망까지 살펴 시청자 궁금증을 해소했다. ‘주간 핫 뉴스’는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고 공수처 출범 전망까지 언급돼 뉴스의 흐름을 알 수 있게 도왔다. PICK & PICK은 코로나 때문에 달라진 추석 명절 분위기와 방역 강화대책을 살펴본 ‘불효자는 옅니다’와 통신비 지원 내용 등을 살펴본 ‘16-34세, 65세 이상’이 유익한 정보로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가짜뉴스를 바로잡는 ‘이 뉴스 정말?’은 잘못 보도된 내용을 올바르게 밝혀 정책 신뢰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원이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이후 북한에 의해 살해되고 화장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의 경직으로 인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해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은 것 같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으로 특히 검찰, 국정원 등의 개혁이다.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는 법무부, 행안부, 국정원 등의 수장이 참석하여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국정원 개혁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1년 7개월 만에 이뤄진 2차 회의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며 이런 권한을 배분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개천절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그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 갖게 했다.

‘PICK & PICK’는 사진이나 키워드 등을 제시하고 시의성 있는 현안을 논의했는데 ‘불효자는 옅니다’는 코로나19 속 추석연휴에 고향에 내려가는 민족 대이동의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위트 있는 현수막 등을 소개했다. ‘16-34세, 65세 이상’은 추석 고향 방문 자제와 통신비 지급과 관련한 내용으로 시의적인 흐름을 잘 반영해 관심을 갖고 들을만한 내용이 많았다.

이 뉴스 정말? 꼼꼼한 팩트체크에서는 지난 4월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의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입한 이후 해당 진단키트가 불량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메릴랜드주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추석연휴 관련 지인사칭, 선물 관련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스미싱 문자가 많았다.